

Deloitte.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금융산업연구소에서는 회계/감사 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Accounting & Audit Newsletter'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연구소 Newsletter

2022.03.31



Fresh Start

3월 31일로 중요한 결산공시 및 감사보고서 공시가 종료 되었습니다.

이어 4월부터는 1분기 결산을 시작으로 2022년 회계/감사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Newsletter에서는 분기별로 반드시 적용되거나, 제/개정되는 회계기준서 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체크리스트 관련 소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마다 참고해서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IFRS 위원회는 각종 기준개정 작업에 활기를 띠고 있고 국내의 금융감독원은 앞으로의 감리운영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는 등 본격적으로 2022년 업무가 시작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며 코비드도 빨리 종식되고 우리모두 건강하게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2022년 4월 Newsletter를 통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딜로이트 안진 금융산업연구소 올림

Contents

Deloitte의 IASPLUS.com 주요 뉴스	4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10
PCAOB 주요 뉴스.....	12
주요 회계관련 뉴스 Link.....	13
Glossary	14



<https://www.iasplus.com/en/news/2022/03>



[EFRAG publishes due process procedures for its SRB](#)

30 Mar 2022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EFRAG)는 EFRAG 내의 지속가능성 보고 위원회 (Sustainability Reporting Board; SRB)가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를 개발할 때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단계에 대한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동 발표문에는 각 프로젝트에서 고려해야 하는 비 필수적인 단계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후 수행되어야 하는 프로세스는 SRB 설정을 위한 목적, 준수해야 하는 원칙, 적절한 감독, 의제 설정 및 표준 설정에 대한 논의입니다. 투명성(SRB 의장에 의해 일부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회의는 공개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안건 내용은 최소 회의 5일 전에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제공되어야 함)과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최소 120일(빠른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0일 이하로 단축 가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되어진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은 [EFRAG 웹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March 2022 IASB meeting notes posted](#)

28 Mar 2022

IASB는 2022년 3월 22일(화)부터 24일(목)까지 3일 동안 런던에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동 회의에서 논의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관찰자로서의 Deloitte 의견을 게시하였습니다.

동 회의에 대한 Deloitte 가 게시한 의견은 [다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Updated IASB work plan — Analysis \(March 2022\)](#)

28 Mar 2022

IASB의 2022년 3월 회의 이후, IASB의 향후 업무계획을 분석하여 2022년 2월 업무계획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이후 추가적인 회의 및 기타 개발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래는 2022년 2월 28일 이후 업무 계획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분석한 것입니다.

Standard-setting projects

- 변경 없음

Maintenance projects

- 변경 없음

Research projects

- Dynamic risk management(동적 위험 관리): 프로젝트 방향에 대한 결정은 2022년 5월로 예상됩니다(2022년 2Q 이전).
- Equity method of accounting(지분법 회계처리): 프로젝트 방향에 대한 결정은 2022년 3월로 예상되었지만, 회의 중에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Post implementation review of IFRS9(IFRS9 이행 후 검토): 이행 검토에 대한 피드백은 3월 IASB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동 피드백 성명서의 발표는 2022년 2분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Other projects

- *IFRS Taxonomy Update* — 2021 Technology Update: 최종 업데이트는 2022년 3월에 발표된 '[IFRS Taxonomy 2022](#)'에 통합되었습니다.
- *IFRS Taxonomy Update* — Initial Application of IFRS17 and IFRS9: 최종 업데이트는 2022년 3월에 발표된 '[IFRS Taxonomy 2022](#)'에 통합되었습니다.

위 사항은 2022년 2월 28일과 2022년 3월 28일 기준의 IASB 업무계획을 비교한 것입니다. 현재 IASB의 업무계획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 IFRS Accounting Taxonomy issued](#)

24 Mar 2022

IFRS 재단은 2022 IFRS Accounting Taxonomy를 발행하였습니다. IFRS Taxonomy는 IFRS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정보의 전산 보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2022 IFRS Accounting Taxonomy는 2022년 1월 1일 현재 IASB에 의해 발행된 IFRS(발행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포함)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2 IFRS Taxonomy는 개정 IFRSs를 반영한 2021년 IFRS Taxonomy의 3가지 변동사항과 IFRS Accounting Taxonomy’s technology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자료](#) 및 IASB's website의 [2022 IFRS Accounting Taxonomy page](#)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and GRI plan to align their sustainability reporting requirements](#)

24 Mar 2022

IFRS 재단 및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는 관련 기준제정 위원회, 국제지속가능기준위원회(ISSB), 그리고 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GSSB) 가 그들의 추진 프로그램과 기준 개정활동에 협조할 것을 언급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업을 통해 IFRS 재단 및 GRI 는 ISSB 에서 제정한 “국제지속가능성보고 - 투자자 관점 자금시장 기준”과 GSSB 에서 제정한 “다수 정보이용자 관점 지속가능성보고 요구사항”를 모두 포괄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IFRS 재단 website 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FRAG survey on IFRS 15](#)

22 Mar 2022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재무정보 이용자 및 작성자로부터 수익인식 관련 IFRS 15의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새로운 기준서의 시행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침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무제표 작성자와 이용자의 견해는 다가올 EFRAG의 IFRS 15 실시 후 검토와 관련된 작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EFRAG가 일반적으로 IFRS 채택의 순원가를 더 잘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EFRAG website](#)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FRS IC

견서를 논의했습니다.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holds March 2022 meeting](#)

21 Mar 2022

IFRS 해석위원회(위원회)는 2022년 3월 15-16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는 4개의 최초 검토 항목과 하나의 잠정 안건 결정에 대한 의

Items for initial consideration

- IFRS 17 보험계약—연금계약집단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의 수량
- IFRS 9 금융상품 및 and IFRS 16 리스—임대료 할인: 임차인과 임차인
- IAS 32 금융상품 : 표시—특수목적인수회사(SPAC): 공개 주식의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
- 특수목적인수회사(SPAC): 취득시 신주인수권 회계처리

Comment letters on tentative agenda decision

- IAS 7 현금흐름표—사용제한이 있는 요구불예금

구체적인 내용은 Deloitte observers에 의한 [detailed notes](#)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EC - 기후관련 주석공시사항 규정](#)

21 Mar 2022

SEC 는 투자자들을 위한 기후관련 공시사항 규정('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을 발표 했습니다.



이 [제안규정](#)은 상장사들이 증권신고서에 특정 기후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경영성과, 재무상태, 관련 측정지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위험요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Deloitte's [Heads Up — SEC proposes rule on climate disclosure requirements](#)



[New and revised pronouncements as at 31 March 2022](#)

18 Mar 2022

2022 년 3 월 31 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적용해야 하는 제개정 회계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양식을 이용해서 결산시 적절하게 기준서가 적용되었는지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30 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시사항을 점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 공시)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 [Summary : 다양한 분기별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IFRS 기준서](#)
- [New or revised standards : 신규 및 개정 기준서](#)
- [Amendments : 일부 추가된 기준서](#)



우크라이나의 최근 상황에 대한 재무보고사항

10 Mar 2022

비영리기관인 “Accountancy Europe”은 '우크라이나 전쟁 - 유럽의 회계사들이 알아야 할 사항'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EU 와 기타 국가들이 각종 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회계사들은 이런 조치들이 어떤 영향을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Accountancy Europe'의 홈페이지에 게시([article on the Accountancy Europe website](#))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회계, 감사, 각종보고서, 자금세탁방지, 사이버보안 등의 업무영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고서의 상단에 link 를 따라가시면 각국의 회계사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서들을 해당국가의 언어로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IFRS IC 위원 임명

01 Mar 2022

IFRS 재단은 Bruce Mackenzie 를 IFRS 해석위원회 의장으로 새로 임명했습니다.

Mackenzie 씨는 IASB 의 위원회 구성원이며, IFRS 해석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전임 Sue Lloyd 위원장은 ISSB (국제지속가능기준위원회) 부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FRS 재단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28 Mar 2022

금융감독원은 12 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3.31.)이 임박함에 따라 「2022 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기본 방향

-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실적 악화 등 회계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대 회계 부정의 예방·포착·제재 활동을 강화하되
 - 경미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하여 올바른 재무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상장사 회계점검을 확대할 계획
- 회계개혁에 따라 감사여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를 정착시켜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며
 - 피조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리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술·환경변화에 걸맞게 디지털 감독역량을 강화하는 등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

중점 추진사항

-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 회계분식 혐의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엄정한 감리 실시
 -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강화된 조치를 엄중 부과
 - 심사·감리 수단 및 적발기능 강화를 통한 분식유인 억제
- 심사·감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상장사 회계점검 확대
 - 재무제표 심사·감리의 신속 처리 및 효율성 제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 유도
 - 심사대상 선정방식 개선 및 테마*심사 확대 실시
 - *'22 년 중점심사대상: ①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③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④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법인의 역량강화 유도
 -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 실시
 -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제도의 정착 지원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의 충실한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
 - 제재절차 합리화·간소화 등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 기술·환경변화를 반영한 심사·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 업무매뉴얼 정비 등을 통한 회계감독 역량 강화

심사·감리 실시대상

■ 재무제표 심사·감리

-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171 사) 대비 9사 증가한 180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
-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 100여사 내외로 선정

■ 감사인 감리

- 전년(13사) 대비 4사 증가한 총 17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
-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 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기대효과

-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및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하고,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
-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신속히 처리하여 기업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감리·제재절차를 개선하여 피조치자 권익 보호
-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고, 상장사·지정회사 감사비중 등을 감안하여 감사인감리를 차등화함으로써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자세한 내용은 [회계감독 동향자료](#)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AOB Highlights Key Considerations for Auditors Related to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PCAOB는 2022년 3월 31일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감사 고려 사항 \(이하 "감사 고려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감사 고려 사항"은 위험 식별 및 평가, 감사절차 계획 및 수행, 발생 가능한 불법 행위, 중간 재무정보 검토, 감사 계약의 수락 및 이행을 비롯한 다양한 감사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AOB News releas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회계관련 뉴스 Link

Accounting News Clips (검색기간 2022.01.01 ~ 2022.01.31)

- | | | |
|----|--|------------------------|
| 1 | 전월 정비한 4대 금융지주 '비은행·디지털' 진검승부 | 머니투데이 (2022-03-31) |
| 2 | 이원덕號 우리은행...현장 영업조직 중심 '수익성'에 힘 썼다 | CEO스코어데일리 (2022-03-29) |
| 3 | IFRS17 앞두고 보험사 지급여력 악화...금리상승 '직격탄' | 머니투데이 (2022-03-29) |
| 4 | 합영주 '비은행 M&A' 신호탄 어디?...금융권 '촉각' | 뉴시스 (2022-03-29) |
| 5 |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대외 불확실성 커져...미·중·러 관계 통찰 중요" | 경향신문 (2022-03-29) |
| 6 | 금감원, 토스·토스뱅크 검사 착수 | 이데일리 (2022-03-28) |
| 7 | "적과의 동침?" 은행권 공동점포 급물살...점포폐쇄 대안 될까 | 더팩트 (2022-03-22) |
| 8 | 지난해 은행 종합검사, 신한-KB 제재 많이 받아 | 파이낸셜뉴스 (2022-03-22) |
| 9 | 증권사 작년 순익 9 조원... 또 사상 최대 실적 | 디지털타임스 (2022-03-21) |
| 10 | 네이버·카카오페이도 리더십 교체...퀀텀점프 노린다 | 뉴시스 (2022-03-16) |



Glossary

- ASAF** :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회계기준자문포럼
- ASBJ** : Accounting Standards Board of Japan 일본회계기준원
- CAQ** : Center for Audit Quality 감사품질센터
- DP** : Discussion Paper 토론서
- EFRAG** :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
- ESMA** : The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유럽증권시장감독청
- FSB** : Financial Stability Board 재무안정위원회
- GRI** : Global Reporting Initiative
- GSSB** : 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
- IFA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국제회계사연맹
- IPTF** : International Practices Task Force 국제실무전문위원회
- IFASS** : International Forum of Accounting Standard Setters 회계기준제정기구국제포럼
- IFRS AC** : IFRS Advisory Council 국제회계기준자문위원회
- IFRS IC** :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
- IPSASB** :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
- ISSB** :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 ITCG** : IFRS Taxonomy Consultative Group 국제회계기준 택사노미 자문그룹
- IVSC** :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 Council 국제가치평가기준위원회
- IVS** :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 국제가치평가기준
- SMEIG** : SME Implementation Group 중소기업회계기준 실행그룹
- TCFD**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시전문위원회
- TRWF** : Technical Readiness Working Group 기술적준비작업그룹
- WSS** : World Standard-setters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



조태진 Partner

Tel : 02-6676-3322
Mobile: 010-9129-2247
E-mail : tajo@deloitte.com



공선희 Partner

Tel : 02-6676-1264
Mobile: 010-2112-3417
E-mail : sgong@deloitte.com



김재현 Partner

Tel : 02-6676-1175
Mobile: 010-9414-7517
E-mail : jaekim@deloitte.com



박재철 Partner

Tel : 02-6676-1159
Mobile: 010-6267-9616
E-mail : jaepark@deloitte.com



이형남 Partner

Tel : 02-6676-1268
Mobile: 010-2707-0902
E-mail : hyunlee@deloitte.com



김현웅 Director

Tel : 02-6676-1226
Mobile: 010-4004-9206
E-mail : hyunkim@deloitte.com



김현철 Director

Tel : 02-6676-3067
Mobile: 010-2204-5466
E-mail : hyunchkim@deloitte.com



최아름 Senior Manager

Tel : 02-6676-1278
Mobile: 010-8764-3260
E-mail : ahchoi@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